

자매들을 위한 공과

4 과

여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임

성경: 출 1-2

- I.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한다.
 - A.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땅 위에서 그분에게 거처를 건축하는 백성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끝에서 성막이 세워져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출 40:17, 33-34.
 - B.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땅 위에서 하나님의 권익을 위하여 싸울 군대도 필요하다. 만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을 누리려하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증거인 성전을 건축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땅을 원수의 강탈하는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민 1:1-4, 33:52-54.
 - C.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땅 위에서 그분의 권익을 위하여 싸우는 것과 관련이 있다—비교 앱 4:11-16, 6:10-18.
 - D. 이러한 것들에서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여성의 생명이다.
 1. 출애굽기 1, 2 장의 기저를 이루는 주제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존하고 그들을 노예상태에서 구출하는 구원자를 예비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생명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다.
 2. 백성을 보존하고 구원자를 예비하는 것은 둘 다 여성의 생명에 의해서만 성취되었다—출 1:15-21, 2:1-10.
- II.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이시고, 하나님의 머리되심 아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남자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아래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이다—고전 11:3
- III.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남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한다—롬 5:14, 요 5:26, 8:58
- IV. 남자를 예표하는 여자는 독립적인 생명을 상징한다—고전 11:7-8, 창 2:7-9, 마 4:4, 요한 6:53-54, 57, 14:19b, 15:4-5, 20:22, 요일 5:12
- V. 남자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생명을 사는 참된 ‘여성’이어야 한다—빌 1:21a, 갈 2:20, 고전 15:10, 고후 1:8-10, 3:5, 4:7, 12:9-10
- VI.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인 것은 배역하는 것이다—창 2:16-17, 3:1-6, 롬 5:19a
 - A. 우리가 독립적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하는 것이다—요일 3:4, 6, 골 2:19.
 - B. 남성의 생명은 독립적이고 반역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 성취를 위해 남성의 생명을 사용하실 수 없다.
- VII. 만일 여자가 독립적인 생명을 산다면 그녀는 진짜 ‘남성’이 되는 것이다.
 - A. 오늘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남성들’이 되었다.

B. 많은 별거와 이혼이 있는 주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VIII. 오직 참된 ‘여성’의 생명만이 하나님께 유용하다—출 1:15-21, 2:1-10

A.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여성으로 비유된다.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배우자로 대하셨다—사 54:5, 렘 2:2, 호 2:19.
2.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은 처녀들로 여겨진다—마 25:1, 고후 11:2.
3. 에베소서 5 장 25 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분의 배필, 그분의 아내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본다.
4. 그리스도는 천년왕국에서 그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이다—계 19:7.
5.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될 것이다—계 21:2-3, 9.

B. 우리가 자매이든 형제이든 우리 모두는 ‘여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에 의해서만 살아야 한다.

1. ‘여성’이 되려면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비교 아 6:13b, 8:5a:
 - a. 창세기 2 장에 있는 생명나무는 의존하는 것을 상징하고 지식나무는 독립하는 것을 상징한다. 생명은 언제나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지만 지식은 언제나 우리를 독립하게 만든다—창 2:9.
 - b.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 대신에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보다는 의존을 택하길 원하신다는 의미이다—창 2:16-17, 비교, 신 30:19.
 - c.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어왔다 해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생명을 위하여 그분을 의존해야만 한다.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숨쉬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다. 생명에는 졸업이 없다—요한 6:57, 7:37, 20:22, 계 22:1-2
 - d.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곳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 완수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생명은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다—고후 1:8-10, 12:9-10, 창 32:1-31, 비교 대하 20:12-27, 아 6:13b, 8:5a.
2. 만일 우리 모두가 의존해야 한다는 건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교회생활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 a. 교회생활과 결혼생활과 성도들 가운데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 그 근원은 바로 독립이라는 것이다—비교 계 2:4.
 - b. 여러 해에 걸쳐서 교회가 건축되는 대신에 찢어진 이유는 소위 건축자들이 너무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던 것이다—갈 4:29, 빌 3:2-3, 골 2:18-19, 유 8, 19, 벧후. 2:10, 딤후 4:14-15, 딤후 1:10-14, 3 요한 9-10, 계 2:20
 - c.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는가에 있다—요한 15:5, 빌 4:13

C. 오직 ‘여성’의 생명만 주님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주님에게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1. 세상 사람들만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용지물이다.
2. 모세는 여성의 생명을 살도록 훈련받았다—출 2:11-22, 3:1-6, 10-12, 4:10-12

- a. 모세는 하나님을 유일한 기원자로 존중하였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산에서 보여주신 본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출 25:40
- b. 만일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합당한 방식으로 온전케 하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여성’의 생명이 필요하다—고전 2:1-5, 15:10, 고후 2:10, 12-14, 4:7, 빌 3:3, 골 1:29
- 3. 더구나 모든 전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성의 생명을 살고 있었다—수 6, 10:7-14, 11:1-9, 비교 시 18:1-3, 28-50
 - a. 만일 여성이 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싸울 수 없을 것이다—엡 6:10-18, 계 19:7-8, 11, 14, 영어 찬송 #887, 1 절 1.
 - b. 하나님은 오직 여성 전사들만 사용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독립적인 남성의 생명을 살고 있다면 영적 전쟁에 관한 쓸모가 없다는 의미이다—아 6:10, 13.
- D. 오직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성들’일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보기 바란다.

사역의 말씀 발췌문: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 준다. 이 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는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끝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이 세워진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싸울 군대가 필요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에서 단체적인 한 백성으로 나왔으며, 나온 즉시 그들은 군대로 편성되었다. 구속받은 때로부터 좋은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들은, 특별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점령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대적들을 정복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인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그들은 대적의 강탈하는 손아귀로부터 그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는 것은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는 것과 땅 위에서 그분의 유익을 위해 싸우는 것과 관계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여자의 생명이다. 그러나 타고난 관념에 의하면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은 웅당 남자의 생명이어야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싸움을 잘하는 반면 여자들은 더 약한 이들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두 장을 연결하는, 숨어 있는 주제를 보지 못한다. 1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노릇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며, 2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할 사람을 어떻게 예비하셨는지를 계시한다. 이 부분에 숨어 있는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속박에서 구출할 구원자를 예비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 어떤 한 종류의 생명이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이다. 백성을 보존하는 것과 구원자를 예비하는 것은 모두 오직 여자의 생명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성경에서 ‘남자’에 대한 개념은 의미가 풍성하다. 물론 그것은 남자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독립적인 생명을 암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그것은 우주 안의 유일한 남자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결혼한 모든 형제들은, 자신은 단지 그림자 남편에 불과하며 참남편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54장 5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 시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배우자로 여기셨다(호 2:19). 여자든 남자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단체적인 아내였다.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용어는 머리 됨을 암시하며, 또한 독립적인 생명을 암시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남자를 말할 때, 우리 생각에는 머리이며 독립적인 생명을 가진 남편이 떠오른다. 우주 안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남편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머리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독립된 생명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을 의지할 필요가 있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독립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또한 모독하는 것이다.

여자들이 결혼한 자매들은 머리 됨을 강탈하거나 독립적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은, 참남편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결혼한 형제들이 아내들에 대하여는 그림자 남편일지 모르나, 사실상 그들은 주님께 여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머리 되심을 강탈하거나 독립된 생명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들은 또한 순종적이어야 하고 의존하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오직 참된 ‘여자’의 생명만이 하나님께 유용함

우리가 자매들이든 형제들이든 우리 모두는 ‘여자’가 될 필요가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 유용한 생명에 의해 살 필요가 있다. ‘여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생명나무는 의존을 상징하며, 지식나무는 독립을 상징한다. 생명은 항상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반면, 지식은 항상 우리를 독립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전에, 그 아이는 그 문제에 관해 당신을 의지한다. 그러나 일단 어떤 일을 배우면 그 아이는 교만하게 되고 독립적이 된다. 반대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 대신 생명을 선택하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에게서 독립하기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적인 생명을 사는 것은 지식나무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것은 생명나무에 의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나무에 의해 사는 것은 사실상 주님 자신에 의해 사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가 의지하는 생명에 대한 뛰어난 예(例)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가지들은 포도나무를 의지한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하는 것에 관한 독립이 있을 수 없다.

세상적인 사람들만이 독립적인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생명을 산다. 이러한 이유로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하는 생명을 살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아무리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생활을 위해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에서 졸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칠십 년 동안 숨을 쉬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숨 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생명에 있어서는 졸업이 없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해야만 하는 위치에 우리를 두시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 거해야 하며, 당신을 저의 생명으로 취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여자’의 생명, 즉 항상 당신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생명이다.

사십 세 때 모세는 독립적인 ‘남자’의 생명을 살았다.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행동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천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다. 모세는 실로 독립적인 ‘남자’였다. 그러나 사십 년 동안 모세는 제쳐졌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남자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가르치셨다. 남자의 생명을 훈련하여 여자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생애의 두 번째 사십 년 동안 여자가 되기를 배웠다. 그의 세 번째 사십 년 동안, 즉 팔십 세부터 백이십 세까지 모세는 여자의 생명을 살았다. 오직 한 번, 그가 반석을 두 번 쳤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했었다(민 20:7-13). 그 일에서 모세는 남자로서 행동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며, 따라서 그는 좋은 땅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허락받지 못했다.

성경 독자들은 대개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도자로 여긴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 대해 이러한 관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인도자로서의 지위를 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를 거슬러 반역했을 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이라고 생각했지 자신을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는 다만 주님께 나아가 그 문제들을 그분께 아뢰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세는 머리이신 주님을 유일한 남자로 존귀하게 했다. 이것은 모세가 여자의 생명,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자의 생명은 1장과 2장에서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장들 전체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모세가 여자의 생명을 살도록 훈련되었다는 것을 지적했다. 더욱이 모든 전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의 생명을 살았다. 당신이 여자가 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직 여성 전사들만을 사용하신다. 이것은 당신이 독립적인 남자의 생명을 산다면 영적 전쟁에 관한 한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남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은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방법으로 그의 아내를 다룰지도 모르며, 어떤 아내는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남편을 다룰지도 모른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남자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이들, 즉 이러한 ‘남자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 즉 ‘여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는 참으로 의지하는 생명을 사는 ‘여자들’이다.

교회 역사는 ‘여자’의 생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음을 보여 준다. 마르틴 루터를 예로 들어 보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배운 사람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루터는 천성적으로 의지가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그는 강한 ‘남자’가 아닌 의지하는 ‘여자’로서 살고 행했다.

바울 역시 이 같은 ‘여자’였다. 그의 글들은 이 사실을 증언한다. ‘여자’인 바울은 주님에게서 독립하는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일과 행위와 행동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우리 모두는 오늘날 각지 교회들 안에서 이렇게 의지하는 생명을 살 필요가 있다. 우리 중의 누구도 ‘남자들’처럼 처신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교회들 안에 있는 문제들은,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독립적인 ‘남자’의 생명을 사는 것에 기인한다. 지방 교회 안에 ‘남자들’처럼 사는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독립적으로 살지 말아야 함을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이 공과를 배운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모두가 독립되는 것에 대하여 건강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교회생활 안에 문제들이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결혼한 부부들 가운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회생활과 결혼 생활과 성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한 가지 근원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근원은 독립이다. 우리는 출애굽기

에 있는 산파들과 같이 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의견이 충만하고 항상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강한 ‘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출애굽기 1장에 있는 산파들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출애굽기 2장에 있는 여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가 파라오에게 항의했을 때 모세는 ‘남자’가 아니었다. 파라오를 대함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자’였다. 모세는 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시도된 것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유일한 창시자로 존귀하게 했다.

성막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모세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지어야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반대로 그는 산에 오르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있는 바를 계시해 주셨고, 산에서 그에게 보이신 모형을 따라 성막을 건축하도록 그에게 명령하셨다(출 25:40). 하나님은 모세에게 독립적으로 결정할 여지를 주지 않으셨다. 모세는 모든 세부 사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이다.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많이 말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데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의지하는 생명을 가져야 한다. 주님께서 보기를 갈망하시는 온전하게 된 유일한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살고 행한다면, 우리가 한 일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온전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오직 의지하는 생명만이 의지하는 생명을 산출한다. 오직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명만이 다른 사람들을 ‘여자들’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매우 강하고 자신의 능력과 제안과 결정을 확신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사람은 독립적인 생명들, 즉 역량이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사람들만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한 일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이 아닌 큰 바빌론, 즉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그분을 대항해 반역하는 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여자이다. 여자로서 교회는 머리 됨을 취하거나 독립된 생명을 갖지 않는다.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그 생명은 의지하는 생명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상황이어야 한다. 우리가 합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에게 ‘여자’의 생명이 필요하다.

수년에 걸쳐서 교회가 건축되지 않고 허물어진 이유는 소위 건축자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독립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여자’의 생명을 살기를 자원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중점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 예수님은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익숙할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제쳐 놓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행한 사람이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몹시 떨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서 독립하여 스스로 무언가를 할까 봐 두려워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황을 베푸시어 이와 같이 합당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독립된 무언가를 말하거나 하기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독립해서 하는 일은 다 반역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복음 전파나 성도들을 돕는 것까지도 반역의 한 형태일 수가 있다. 우리가 교회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반역일 수 있다. 이는 그것이 주님에게서 독립되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여자의 생명에 관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빛으로 인해 감사를 드린다. 그분께 유용한 생명은 오직 여자의 생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결코 남자의 생명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1장에 있는 여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2장에 있는 여

자들은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릇을 예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국 모세 자신도 ‘여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그는 1장에 있는 산파들과 2장에 있는 다른 여자들과 같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자극을 받았을 때 한 번 남자처럼 행동했는데, 그로 인해 그는 축복을 잃었다. 주님의 경륜과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오늘날 그분의 움직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여 행하지 않도록 두려움과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시간과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의지하는 ‘여자들’이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 바란다. 오직 ‘여자’의 생명만이 주님께 유용하다는 것을 그분에게서 배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장, 51-53, 55-58, 60-63쪽)

연구 질문:

1.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 유용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 영적으로 '여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3. 결혼생활과 교회생활과 성도들 가운데 생기는 모든 문제들의 한 가지 근원은 무엇이며,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참고 도서와 추가로 읽을 말씀:

1. 출애굽기 라이프 스테디, 메시지 4.